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낮예배 후에는 여성교회가 주관하는 '연약한 이웃 교회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가집니다. 맛있는 제주 감귤(10kg)입니다. 2020년 달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이번 성탄축하예배는 24일(화)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는 쉽니다.
4. 이번 주 토요일(12/28) 청소담당은 네팔 목장(박성대 집사)에서, 다음 주일(12/29) 식사 담당은 에스더 목장(오효근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수집사로 피택된 세 분(이현호, 박성근, 박성대 집사)의 임직식이 다음 주일(12/29) 낮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6. 내년 1월 첫 주부터 1부 예배를 신설합니다. 예배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 가 정해 놓은 주일 낮예배-오후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2월 22일	12월 25일	12월 28일	12월 31일
예배기도(오전)	박성근 집사	유중열 장로	조정석 집사	김윤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이영선 권사	구주성탄절	목장주일	송구영신예배
주일식사담당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구주성탄절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송구영신예배
토요일청소	네팔목장 (12/28)	구주성탄절	남성 2목장 (‘20년 1/4)	송구영신예배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에 세워질 남·여 목장을 위해서
2. 2020년도에 세워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는이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19번(성탄절) 다같이
*경배찬송	20장(통 4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11장(통 111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성근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시 31:19-24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강하고 담대하라'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박일선 전도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112장(통 112장)	다같이
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행 13:4-12	인도자
말씀선포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436장(통 493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30 서신서강해 허영진 목사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쉽니다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행'(111)

새벽기도회 새벽 5:30 대림절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새 부대를 준비하자

사람은 과거라는 관성에 이끌릴 때가 많다.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정(情)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오래된 것에 만족해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은 결국 더 이상의 성장을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처럼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에 묶여있기 보다, 비록 힘에 겹더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마치 한 여름의 진객인 매미가 성충이 되는 과정이 그러하다. 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뭇 매미타령이냐고 타박하겠지만, 사실 매미는 애벌레로 6년 정도를 땅 속에서 보낸다. 그곳에서 네 번 정도의 허물을 벗은 후, 땅 위로 올라와서는 우화(羽化)의 과정을 거쳐야만 완전한 매미가 된다. 단지 일주일 정도를 살기 위해서 말이다. 이처럼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는 매미처럼, 사람도 성장을 위해서 과거의 묵은 것을 벗어야만 가능하다.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좋은 것이라면,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만 한다. 그 한 예로, 어떤 전통이나 지식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채색되어 어느 한 사람을 지배할 때, 언제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정죄하는 근성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정죄와 비판의 기능은 강한 데 반해,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에는 두려움과 배타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하려는 포용력이 작은 것도 문제다.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아가 어디에 묶여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마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서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더취 쉬츠(Dutch Sheets)는 말한다. “우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 분의 사전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어휘가 없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은 포도주, 더 많은 성령의 부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이런 변화는 언제나 즐거울 수만은 없더라도 언제나 좋은 것임은 분명하다.” 믿음의 성장, 곧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그 변화는 언제나 부담스럽고 때론 아프기까지 하다. 하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 해의 끝자락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새해다.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서자. 지금이라도 과거의 묵은 것은 뒤로 한 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은 첫 걸음을 떼어 보자. 그것도 한 걸음씩 말이다.

Written by 허영진